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36664)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59,4층(T.054-841-8413, F.841-8414)
공보국 담당 / 김희철 M. 010-9957-6998 메일 can6998@naver.com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

일시 ; 2022년 3월 5일(토) 오후 2시

내용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 유세일정 취소 울진산불 지원 나서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 울진 산불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 장세호)가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산불 진화를 위해 주요 유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주민대피소를 찾아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은 5일 오전 현재 6,066ha의 산림피해와 주택 51동, 창고 45동의 재산피해를 남기고 3개 읍면 168명이 울진국민체육센터와 죽변면 복지회관 등에 대피한 상황이며 진화헬기 55대와 진화차량 273대를 비롯 3,000여명이 투입돼 진화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는 이러한 재난상황에 따라 예정된 주요 유세일정을 중단하고 울진, 영덕, 영양 등 인근지역 당원들로 하여금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대피소를 찾아 식사, 생활용품 제공 등 자원봉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경북 유세일정을 진행하던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주민들이 대피한 울진체육센터와 진화현장을 방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갑작스런 화재로 충격을 받았을 주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화마와 사투를 벌인 민관군경 진화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5일 새벽 4시경 울진과 삼척 산불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

해 “삶의 터전이 타오르는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그 참담한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하고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